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24위 복자

복자 심아기 바르바라

(1783-1801)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난 심아기는 오빠 심낙훈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한 후 신자의 본분을 지키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성인들의 모범에 감동하여 하느님께 동정을 바치기로 결심한 뒤에는 조용히 집에서만 지내며 모범적으로 교회의 법규들을 지켜 나갔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 오빠가 체포되자, 심아기도 자신이 곧 체포될 것을 예상하고 포졸들을 기다렸다. 마침내 그들이 들이닥쳐 체포하려 하자, 어머니께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제가 천주의 성스러운 뜻에 순종하도록 놓아두십시오.”라고 말한 뒤 아무런 동요 없이 신앙을 고백하며 한양으로 끌려갔다. 그는 포도청에서 배교를 강요당하며 모진 형벌을 받았지만,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다 계속되는 형벌을 견디지 못하고 순교하였으니, 때는 1801년 4월, 그의 나이 18세였다. 한편, 심아기의 오빠는 형벌을 이기지 못하고 무안으로 유배되었는데, 누이에 대해 이렇게 진술하였다. “저는 제 누이 바르바라에게 (천주교의 교리를) 가르쳐 포도청에서 매를 맞아 죽게 하였는데, 누이는 끝까지 (신앙의 가르침을 믿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성화_김형주 작,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5

연중 제29주일 · 전교 주일 ·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67(66), 2-3 참조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제1독서

이사 2, 1-5

화답송

시편 98(97), 1, 2-3, 4, 3, 4-5-6 (◎ 2 참조 또는 3 참조)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또는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

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뿜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2독서

로마 10, 9-18

복음 환호송

마태 28, 19, 2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마태 28, 16-20

영성체송

마태 28, 20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옛 예루살렘, 곧 다윗 성의 모습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예언자 이사야는 히브리어로 [이사야] 또는 [이사야후]라고 합니다. ‘주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 1,1에 따르면 그는 우찌야,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에 활동하였습니다. 그가 소명을 받던 당시로 추정되는 6,1에 따르면, “우찌야 임금이 죽던 해에”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소예언자 가운데 하나인 아모스보다 후대 사람입니다. 아모스는 북왕국의 예로보암 2세, 남왕국의 우찌야 임금 때 곧 우찌야가 한창일 때 활동하였습니다(아모 1,1). 그럼에도 이사야서가 아모스서보다 앞에 배치된 건 분량이 적은 소예언서들이 하나로 합쳐지며 뒤에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찌야 임금 말기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다면, 그는 기원전 740년경부터 활동한 셈입니다. 기원전 722년 일어난 북왕국의 멸망도 경험했을 터입니다.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는 기원전 701년 남왕국도 침공하는데, 당시 남왕국의 임금이던 히즈키야는 이사야가 전해준 신탁에 힘입어 위기를 극복합니다(이사 37장; 2열왕 19장). 다만 그 이후 이사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39장에서 이사야서 제1부가 마무리됩니다. 이 때문에 이사야 활동의 끝을 기원전 700년경으로 보며, 이를 따른다면 그는 40여년을 예언자로 산 셈입니다.

이사 1,1에는 그의 고향이 어디인지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서에 언급된 활동 영역을 고려하면 예루살렘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1독서의 배경도 예루살렘으로서, 다윗 성(사진)과 그

위로 자리한 주님의 산 시온입니다. 8,3에는 그의 아내도 언급되는데요,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소수의 여예언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덧붙이자면, 여예언자로는 탈출 15장에 미르암, 판관 4장에 드보라, 2열왕 22장에 홀다, 느헤 6장에 노아드야가 나옵니다. 이사야는 귀족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그가 히즈키야의 아버지 아하즈 임금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즈를 만나라는 주님 명령을 받고 어렵지 않게 임금을 알현하였습니다(7,3). 탈무드에는 이사야의 부친 아모츠가 유다 임금 아마츠야의 형제였다는 전승도 나옵니다. 물론 신빙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전승이지만, 이것이 맞다면 이사야는 심지어 왕족이며 상류 생활에 대해 잘 알던 사람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기에, 보수를 기대할 수 없던 예언 소명에 섰을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필부는 먹고 살기 바빠 다른 데로 눈을 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사야를 비롯한 예언자 대부분은 경제적 기반이 있어 소명에 투신할 수 있었던 듯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예언자가 언제까지 활동했는지, 그 끝은 어떠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구약 외경 「이사야의 승천」에 따르면, 그는 히즈키야의 아들 므나쎄 임금 손에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톱에 잘려 죽었다는 전승은 탈무드에도 나오며, 히브 11,37에 언급되는 ‘톱으로 잘린 예언자’는 이사야를 가리키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이사야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였을 뿐 아니라 죽기까지 주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도구로 일생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주교직의 성사성

「교회헌장」 제21항

「교회헌장」 제21항은 봉사 직무로서의 주교직이 갖는 ‘성사성’에 대해서 다룹니다. 다만 개별 주교직이 아닌 복수 형태의 “주교들”이란 표현이 21항 전체에 나타나는 것이 관심을 끄니다. 공의회는 주교들의 행위 안에 영적으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교직의 성사성을 설명합니다. 이로써 공의회는 주교직이 성사적이지 않고 단지 품위에 해당한다는 중세의 사제 중심적 직무 이해를 극복하고, 트렌토 공의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숙제를 해결합니다.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교들을 통하여 하느님 백성 가운데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주교들의 모임에도 계십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는 “주교들의 탁월한 봉사를 통하여”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신자들에게 신앙의 성사들을 집전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주교들의 부성을 통하여” 새 신자들을 교회에 합체시키고, “주교들의 지혜와 슬기로” 나그넷길에 있는 새 계약의 하느님 백성을 영원한 나라로 이끌고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양 떼를 치는 목자인 주교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이며 하느님 신비의 관리인들입니다. 따라서 주교들에게 하느님 은총의 복음을 전하는 증언의 직무와 성령에 의해 의로움으로 이끄는 영광스러운 봉사 직무가 맡겨져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러한 임무를 완수하였고, 협조자들에게 안수를 통하여 영적인 선물(은사)을 전달하였으며, 그것이 주교 축성 안에서 전해 내려옵니다. 이렇게 공의회는 직무 형성의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은사의 전달을 이해하며, 전통에 따라서 안수가 그 성사의 표지임을 언급합니다. 따라서 21항은 “거룩한 공의회는 주교 축성으로 충만한 성

품성사가 수여된다고 가르친다.”라고 확인합니다. 여기서 ‘공의회는 … 가르친다.’라는 형식의 문장은 이 명제가 교의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교 축성은 “대사제직, 거룩한 봉사 직무의 정점”입니다.

주교 축성은 거룩하게 하는 임무와 더불어 가르치는 임무와 다스리는 임무도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 임무는 교황과 주교단이 이루는 교계적 친교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교직 자체가 다른 주교들과 이루는 친교이며, 이 친교 안에서 주교직이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공의회는 주교 축성으로 충만한 성품성사가 수여된다고 가르친다.
손희송 베네딕도 주교의 서품식, 2015년, 명동대성당

끝으로, 공의회는 성사론적으로 주교들이 안수와 축성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총”과 “거룩한 인호”를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주교들은 그러한 성품성사의 은총으로 직무 안에서 스승이요 목자이며 대사제이신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합니다. 이러한 성품성사의 집전자는 주교 개인이 아닌 주교들이고, 이 성사를 통해서 새로 서품된 주교는 주교단 안에 받아들여집니다. ☸

외젠 들라크루아의 <피에타>

힘차게 깃발을 든 여인을 그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1830년)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의 프랑스 정신을 상징하는 이 그림은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의 거장 외젠 들라크루아의 작품인데요, 오늘 소개할 성화는 그 작품으로부터 14년 후, 그가 40대 중반에 이르러 완성한 그림입니다. 지난 8월 3일자 주보에서 소개한 30대 초반의 작품 <성모의 교육>에서도 드러나듯 매우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들라크루아는 여기서는 한결 더 자유롭게 거칠어진 붓 터치를 구사합니다.



외젠 들라크루아(Eugène Delacroix), <피에타>, 1844년 완성, 유약 위에 밀랍과 유채, 355x475cm, 생드니뒤생사크레명 성당(Saint Denys-du-Saint-Sacrement, 파리)

민족을 구원하리라는 메시아를 향한 유대인들의 열광적인 환호와 희망은 충격적인 십자가 사건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폭이 5m에 가까운 이 <피에타>는 절망의 순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돌에서 피에타의 형상을 끌어냈듯이, 들라크루아는 암흑에서 빛을 발하는 구세주를 끌어냅니다. 깊은 절망으로 무거운 적막만 흐르는 밤, 벌써 생명의 기운이 사라져 불길한 고통내 나는 녹색의 예수님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졌습니다.

중앙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두 팔을 뻗어 절규하는 성모님이 있고, 그분 무릎 위로는 아드님의 시신이 힘없이 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부둥켜안은 여인 뒤에는 향유 병이 놓여 있어 그가 마리아 막달레나임을 알려줍니다. 맞은편에는 예수님의 팔과 손을 잡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여인과 성모님 뒤로는 붉은 두건을 두른 또 다른 여인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제베대오 아들들의 어머니”를 포함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던 “많은 여자들”(마태 27,55.56) 가운데 두 명입니다. 성모님 바로 뒤에는 붉은 복장을 한 남자 두 명이 있는데, 좌측에 붉은 망토를 펴려는 젊은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그 옆은 주님의 장례를 치른 아리마태아 출신의 요셉입니다. 또한 우측 멀리 있는 두 인물 중 한 명은 이곳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 현장을 바라보는 증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격정적인 감정 분출을 극적이면서도 고전적 절제미로 풀어낸 프랑스 낭만주의의 디테일이 있습니다. 바로 성모님 뒤 세 인물의 붉은 의상이 피 흘린 그리스도를 대신해 수난과 희생을 연상시켜주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과 성모님은 하늘로부터 드리워진 순백으로 눈부시게 빛납니다. 한편, 성모님의 두 팔은 십자가가 되었고, 그리스도 아래 드리워진 피 묻은 수의에서는 그분을 감싸안은 온기가 느껴집니다. 종교철학자 박갑성 선생(1915~2009년)의 표현을 떠올려봅니다. “성모는 예수의 그늘이다. 여성은 자연계를 대표하는 초자연의 그늘이다. 여성은 소극적인 것의 원리로 자연 속에 머물지만, 초자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원리이며 바탕이다.” 그렇습니다. 성모님은 인류의 모든 고통을 품에 안은 십자가이며 만물의 바탕이 되신 분입니다. 🍀



교구 소식

2026년 신앙교육원 18기 신입생 모집

의정부본원	오후반	화·목	14시~16:10	신앙교육원	정규과정 2년제 4학기
남양주본원	저녁반	수·금	19:30~21:40	지금동 성당	한 학기 4과목 12주간 수업

과목 신·구약 성경과 가톨릭교회의 교리

접수 각 100명 선착순 모집 (예약금 5만원)

회비 학기당 40만원 (분납 가능)

문의 031-850-1545, 010-5578-4898

※ 홈페이지 sd.uca.or.kr/set 참조

고3, 일반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11/2(주일) 13:30

장소 의정부교구청 5층 경당

교구 청년 11월 프로그램 안내

풋살 대회 참가 모집

일시 11/15(토)

장소 중산 AoA 풋살 스타디움

신청 ▶



노틀담 수녀회와 함께하는 <대림 피정>

일시 11/29(토) 19시

장소 청년센터 에피파니아

주제 대림

문의 청소년사목국 카카오톡채널

2025년 본당사회사목분과 연수

일시 11/15(토) 09:30~16시

주제 현대 사회 안에서의 교회 - 사회사목분과의 역할

강사 김경진 베드로 신부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통나무강당

접수 11/7(금)까지

문의 031-850-1472 사회사목국 ※ 기타 공문참조



기억합니다.

10월 23일은故 양종인 치릴로 신부의

13주기입니다.

[담화] 제99차 전교 주일 담화

제99차 전교 주일을 맞아 프란치스코 전임 교황께서 담화를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QR 코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



전신자 성경 읽기 10/19(주일)~25(토) : 요한 18,28-40



10/25(토) 해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시청

특별헌금

결과보고

갈매동 성당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7일 2차 헌금으로 130,393,839원, 건축헌금과 가톨릭페어로 8,325,000원, 총 138,718,839원이 모였습니다.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본당 공동체를 이룰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청합니다.

갈매동 성당 김익호 옴 신부와 신자 일동 / 건축헌금 계좌: 우리 1005-203-542701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미사 · 피정 ▶▶

의정부교구 헤세드 청년 성령 묵상회

날짜: 11/1(토)~2(주일)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파주시 한빛로 21)
대상: 만 45세 이하 모든 청년
회비: 1인 10만원
문의: 010-9574-6469 김영주 메히틸다

위령성월맞이 위로와 희망의 음악 피정

일시: 11/1(토) 19시 / 장소: 신원동 성당
강사: 김수연 클라루디아 (바이올리니스트)
내용: 돌아가신 고마운 영혼들의 안식과 남겨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받는 시간

제주 산들평화순례 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개인 및 각 본당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위령성월피정: 11/2(주일)~4(화)
제주순례: 10/27(월)~29(수), 12/6(토)~8(월),
12/12(금)~14(주일)

추자도 성지순례: 11/22(토)~25(화)
연말연시 피정(한라산·일출·일몰): 12/31(수)~1/3(토)
한라산 눈꽃 영실산행: 1/9(금)~11(주일),
1/15(목)~18(주일), 1/23(금)~25(주일),
1/30(금)~2/1(주일), 2/6(금)~8(주일),
2/22(주일)~24(화), 2/27(금)~3/1(주일)
장소: 제주 면형의 집
문의: 064-732-4702 (2026년 접수중)

예수회 말씀의집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 피정

8일: 11/16(주일)~25(화), 12/10(수)~19(금)
단기: 12/1(월)~4(목) [3박4일]
문의: 031-254-8950 수원 말씀의집

가정회복기도와 미사 - 고해성사·상담

일시: 10/20(월) 13시~16:30 (말씀과 시를 통한 치유)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1,2호선 시청역)
문의: 010-7282-2422 (가족의 갈등과 화해)

씨튼 젊은이 피정

날짜: 11/1(토)~2(주일)
장소: 논산 씨튼 영성의 집
대상: 20~35세 미혼 청년
문의: 041-733-2992, 010-5528-3217

특별초청 상하이트리스트

일시: 11/19(수) 11시~16시, 갈현동 성당
(점심 무료 제공)
내용: 상하이트리스트 찬양치유 피정, 미사
강사: 조남구 마르코 신부 (공도동 주임)
문의: 010-4444-1264 (연신내역 7번 출구)

2025 한마음 수험생 가정을 위한 피정

일시: 11/13(목) 09:30~15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본관
강사: 김경진 베드로 신부
대상: 수험생 자녀를 둔 모든 부모와 가족
회비: 1인 2만원 (점심식사 포함)
※ 피정비 4만원 중 2만원 청소년사목국 지원
준비물: 미사 준비, 묵주, 개인 컵이나 텀블러
문의: 031-840-0018 (내선 201)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6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성지순례(추자도포함): 11/15(토)~18(화)
자연순례: 11/10(월)~13(목), 12/5(금)~7(주일),
12/13(토)~15(월), 12/19(금)~21(주일)
연말연시피정: 12/31(수)~1/3(토)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청주 초정성령회관 1박2일 치유 피정

일시: 매월 마지막(토) 14시 ~ (주일) 14시
장소: 초정성령회관
회비: 2만원 (1박 3식, 청소년 무료)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 조치원역,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셔틀버스 운행

10월 민족화해 하늘지기 후원회원 미사

일시: 10/23(목) 11시 [매월 넷째 목요일]
장소: 주교좌 의정부 사적지 성당
문의: 031-941-6238

의정부교구 성령새신 금요밤 기도회

일시: 10/24(금) 21시~12: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성 빈센트 팔로티회
강사: 김태광 아우구스티노 신부 (팔로티회)
문의: 010-2127-0032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

일시: 11/22(토) 11시 ~ 23(주일) 16시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대상: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
회비: 8만원 (사전 접수자만 피정 가능)
문의: 010-5490-5345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날짜: 11/14(금)~17(월), 12/19(금)~22(월),
1/16(금)~19(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 (수유동)
회비: 36만원 (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본당 출장피정 신청)

ICPE 오마이갓 오마이바디 피정

날짜: 11/14(금)~16(주일), 합정동 마리스타
문의: 010-5320-0419, ICPE카톡 플친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11/7(금)~11/9(주일)
엄마와 딸(미혼) 피정: 11/22(토)~11/23(주일)
장소: 서울 오류동 (1,7호선 온수역 10분)
문의: 010-6890-7223

의정부교구 5지구 영성피정

일시: 10/20(월) 13:40
장소: 화정동 성당 403호 (강의, 안수)
강사: 김종용 프란치스코 신부 (수원교구)
문의: 010-8917-0090



교육 · 모집 ▶▶

주교좌 의정부 성당 교중미사 성가단원 정기 모집

연습: 매주(목) 20시, (주일) 교중미사 전
대상: 의정부교구에 교적을 둔 만 60세 미만 교우
오디션: 성가 1곡
문의: 010-6802-8014 모니카성가대 단장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관내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피나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의: 010-9842-8818

2026 화요일아침예술학교 신입생 모집

모집: 여학생 13명 (미술계열 1학급)
자격: 미술에 열정과 꿈이 있는
중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접수: 11/10(월)~12/5(금)
문의: 070-8891-3831 교무실
031-832-9988 행정실
www.flowerdaymorning.com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주간) 신입생 모집

신학: 신앙과 삶이 하나되는 통합적 신학과
함께 걸어가는 신학 추구
철학/영성-철학상담: '삶으로서의 철학함'을 통해
삶의 문제 해결과 고통받는 인간 치유
가톨릭사회복지학/사회복지학: 사회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실천적 대안 모색
접수: 9/29(월)~10/20(월)
전형: 10/25(토) / 문의: 02-705-8668~9

백석동 성당 교종미사(10시) 지휘자 모집

연습: (목) 20시, (주일) 09시

자격: 전례음악을 이해하고 있으며 성가대를 지도하고 이끌 수 있는 경험자

서류: 세례증명서, 이력서 (학력과 일반음악 활동 및 전례음악 활동 경력 포함), 자기소개서

접수: 우편 또는 이메일 musiactal@uca.or.kr

문의: 031-908-6811 백석동 성당 사무실

2025 가톨릭 성가 페스타

가톨릭 성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제

일시: 10/25(토) 15시, 서울 흰물결아트센터

1부: 가톨릭시니어합창제

2부: 가톨릭성가대교향콘서트

회비: 2만원 / 문의: 010-5245-2848 심준보 베드로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26 전기 신입생 모집

전공: 독서교육, 상담교육, 유아교육, 진로진학상담, 직업특수교육, 평생교육, 한국어교육

접수: 10/27(월)~11/9(주일)

면접: 11/21(금) ※ 홈페이지 참조

문의: 02-2164-4176, 4787, 4173

<https://ged.catholic.ac.kr/ged/index.do>**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분야: 재무회계, 인사기획&성과관리, 영업, 물류지원

서류: 입사지원서 (본사양식)

접수: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문의: 02-6365-1829

※ 홈페이지 catholicbooks.kr-채용정보 참조

황사영순교순례지 사무장 모집

근무: 주 30시간 (수~주일, 09시~16시)

임금: 교구 임금 기준

서류: 이력서, 자격증명서

접수: 우편 (10/28 우체국 직인까지 유효)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270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전기 신입생 모집

접수: 10/27(월)~11/21(금) 17시

제1과정 (예비과정) 철학·신학, 62학점

(수강료 학기당 100만원)

제2과정 (석사과정) 교회법, 88학점

(수업료 50% 장학금 혜택)

문의: gscl.catholic.ac.kr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직원 모집

모집: 영양조리반

업무: 전처리, 조리

근무: 08:30~17:30, 주5일 (변동근무)

문의: 031-840-0018 (내선104)

※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hanmaum84.com 참고

가톨릭대학교 2026 전기 생명대학원 신입생 모집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석사과정
접수: 11/3(월)~14(금) 17시

전형: 12/1(월) 14시

문의: 02-3147-8156 교학팀

02-3147-8664 조교

CPE(임상사목교육) 불학기 모집

이웃과 자신을 위한 영적돌봄 교육훈련

기간: 2/23~6/23, 매주(화) [16주간]

장소: 의정부교구 CPE센터 (교구청 별관 2층)

정원: 선착순 6명 / 회비: 90만원

문의: 010-2235-2117

생태영성학교 - 기본과정 3기

일시: 11/1~12/6, 매주(토) 10시 미사 후

장소: 평내 성당 (남양주시 경춘로1256번길 17)

회비: 3만원

문의: 031-850-1492 생태환경위원회

한마음 독서산책 참가자 모집

일시: 11/1(토) 10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내용: 자연 속에서 산책을 즐기며 독서의 재미를
함께 나누는 야외활동

문의: 031-840-0018



안내 · 기타 ▶▶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성지순례 - 14박15일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1월 말)

주관: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문의: 010-5735-4578

성심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12/8(월) 베트남 라방 성모성지 (5일)

1/15(목) 베트남, 마카오 성지 (6일, 지도사제 동행)

문의: 010-5909-5997 성심여행사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12/22(월)~26(금) 성탄 필리핀 (180만원)

1/15(목)~26(월) 이집트 (475만원)

1/27(화)~31(토) 베트남 중부 (178만원)

3/2(월)~12(목) 영국, 아일랜드 (680만원)

문의: 02-2281-9070

2026년 「간 김에 순례」 프로그램

유럽 수도원 및 성지 순례 (프랑스, 독일, 이태리)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분도출판사

문의: 010-5577-3605

※ 분도출판사 홈페이지 참조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1/10(토) 남인도 성지순례 (7일, 350만원)

1/16(금) 상해 성지순례 (4일, 119만원)

1/19(월), 2/22(주일)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9만원)

3/23(월) 폴란드, 체코 순례 (9일, 395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 여행사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11/11(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95만원)

11/21(금) 이태리 일주 (12일, 560만원)

12/4(목)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55만원)

1/27(화) 마카오 김대건 신부님 발자취

(4일, 160만원)

2/14(토)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69만원) - 구정연휴

3/10(화)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60만원)

3/24(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염동국 신부 서품 30주년 기념 특별초대전

전시: [결을 주다] - being there

일시: 10/15(수)~30(목) ※ 월요일, 화요일 휴관

장소: 강남구 삼성로 126길 6, 지하1층

문의: 02-545-0651 갤러리 보고재

성 소 모 입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수도자의 삶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및 청년 / 미리내 수도회 본원		010-5195-3217 성소부
	살레시오회	상시	대림동 수도원	010-6221-3520

목주 기도의 역사

10월 중 자주 바치는 목주 기도는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기도입니다. 3세기 아일랜드의 수도자들은 150개의 시편을 성무일과(聖務日課)로 바치곤 하였는데, 시편 150편 전체를 노래하거나 50편씩 세 묶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글을 배우지 못한 수도자들은 이 긴 시편을 바칠 수 없었고, 주님의 기도를 150번 암송하는 걸로 대체하였습니다. 이때, 반복하는 기도의 횟수를 헤아리기 위해 가죽 주머니에 작은 자갈을 넣거나, 150개의 매듭을 엮은 끈이나 50개의 나무 조각을 줄에 꿰인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목주의 기원입니다.

그러다가 12세기 중엽 주님의 기도 대신 성모송을 외우는 기도 형식이 등장해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성 도미니코(1170~1221년)가 성모님에게 목주를 받으며 이 기도를 배우고 사람들에게 전파했다고 하나,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목주 기도가 정립된 건 도미니코회의 복자 알라노 드 튀프(1428~1478년)에 의해서입니다. 그는 단마다 짧은 목상 구절과 함께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성모송을 10번 반복하였습니다. “비파로 주님을 찬송하여, 열 줄 수금으로 그분께 찬미 노래 불러라.”(시편 33,2)는 시편을 생각하면, 한 단을 이루는 성모송 10번은 주님께 올리는 찬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의 일생 15개의 신비를 5개씩 묶어 환희, 고통, 영광의 신비로 정리하였습니다. 한편, 도미니코회 출신으로 ‘목주 기도의 교황’이라 불리는 성 비오 5세(1566~1572년 재위)는 1569년 9월 17일, 「로마 교황들은 주로」라는 칙서를 반포하였습니다. 이 문헌을 통해 목주 기도를 바치는 형식을 처음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는데, 이때 복자 알라노가 정리한 목주 기도의 방법이 그 기본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1978~2005년 재위)은 2002년 10월 16일에 발표한 교황 교서 「동정 마리아의 목주 기도」에서 목주 기도에 ‘빛의 신비’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환희의 신비와 고통의 신비 사이에 위치하는 빛의 신비로 목주 기도를 바치는 신자들은 예수님의 공생활을 포함한 그분 생애의 신비 전체를 더 풍요롭게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일 배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예전 관습대로 환희, 고통, 영광의 신비를 바치고, 이어서 목요일에는 빛의 신비, 금요일에는 고통의 신비, 토요일에는 환희의 신비, 주일에는 영광의 신비를 바칩니다.

목요일은 빛의 신비 5단에서 묵상하는 성체성사가 제정된 날이고, 토요일은 전통적으로 마리아께 봉헌된 날로 환희의 신비에 등장하는 성모님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





천주교의정부교구
성모순례지

행주성당

주 임 신 부 : 홍유선 임마누엘
연 령 회 : 박 베드로 (010-6205-7458)
사 무 실 : Tel. 031-974-1728
Fax. 031-972-8537

http://sd.uca.or.kr/hjsd1909
우 1044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성모봉소승진

주일미사		평일미사		성사 및 면담	
토 요 일	17:00	월, 화, 수, 목, 금	11:00	고해성사	매 미사 20분 전
주 일	09:00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11:00			유아세례	상시, 사무실 문의
성 시 간	매월 첫 금요일 15:00	단체 순례객 미사 신청		축복예식	
성모신심	매월 첫 토요일 11:00	사무실 문의		사제면담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전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전 레

● 11월 성모 신심 미사

11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 성모 신심 미사는 모든 성인 대축일 미사로 봉헌되며, 성모님께 드리는 장미 봉헌 시간이 있습니다.

● 위령의 날 첫째 미사 (미사 지향 있음)

미사 시간: 11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

11월 2일 주일 오전 9시

합동 위령 미사 봉헌은 10월 26일 까지 미사 시간을 선택하여 본당 사무실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령의 날 둘째 미사 (미사 지향 없음)

미사 시간: 11월 2일 주일 오전 11시

공 지 / 단 체

● 예비신자 모집

교리 시간: 주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12월 주님 성탄 대축일에 세례성사를 받을 예비 신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전교 주일 2차 헌금

오늘은 전교 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교중미사 주송자, 예물봉헌 담당

10월 19일	주송자	신은석 안젤라
	최성권 야고보, 김민숙 골롬바	
10월 26일	주송자	전옥자 수산나
	양경희 루시아, 류은희 소피아	

우리들의 정성 (9/29 - 10/12)

● 교무금, 주일헌금

교 무 금 9건 715,000원
주 일 헌 금 1,197,000원
군 인 주 일 2차 헌금 752,000원

교무금, 감사헌금	농협 217013-51-118905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	--

계좌 입금시 책정자의 이름으로 하시고 입금 후
본당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공 지 / 단 체

● 연례회 월례회의

일 시: 10월 26일 주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 남성 레지오 단원 모집

회합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본당 남성 레지오 단원 모집을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본당 사무실 또는 단장님께 문의 바랍니다.

단장: 이은혁 마태오 010-2284-6759

- 금주의 복음 말씀 -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화답송



(후렴)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 - 에 당신정의를 드러내셨네.